

한화, GS보다 주가 상승여력 크다!

하나증권, 한화의 주가 상승여력 79% 달해 ... GS칼텍스 영업이익 급감

하나대투증권은 8월27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군에 포함된 화학·정유기업 한화와 GS 중 한화의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정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한화그룹의 자금조달 능력과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에 따른 순자산가치(NAV) 훼손 우려가 여전히 높지만, 계열사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과 부동산 유동화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 4조6000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자산 유동화가 아닌 전액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해도 한화의 적정주가는 6만 6000원으로 상승 여력이 79% 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GS는 7월 이후 유가 하락과 미국 수요의 감소, 중국, 인디아 등지에서 증설 플랜트 가동과 맞물려 정제 스프레드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주력 자회사인 GS칼텍스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역 재고 효과까지 겹쳐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전제하지 않은 GS의 적정주가는 3만7000원으로 상승 여력이 25% 수준이지만 인수를 전제한 적정주가는 2만7000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7>